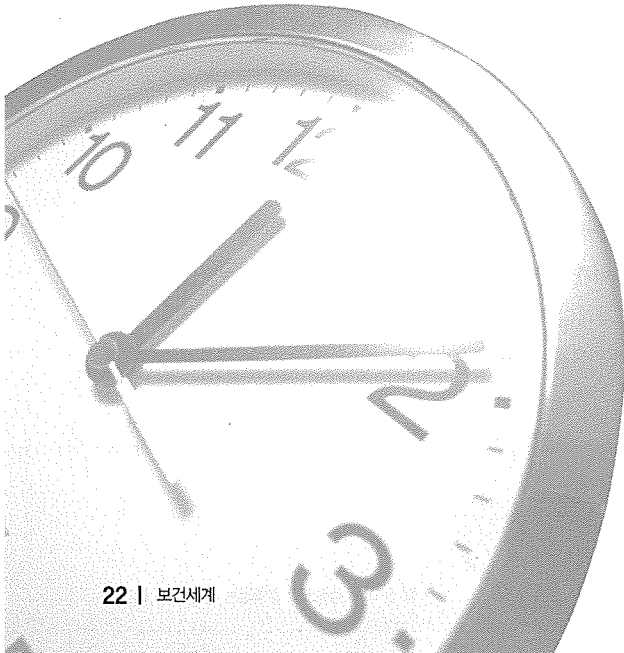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

점심시간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새벽같이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겐 금쪽같은 점심시간. 이런 저런 점심 메뉴로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푸드점이 생기면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한층 여유가 생겼다. 이렇다 보니 요즘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직장인들의 점심 新 풍속도를 들여다본다. 글모라이터스



쌍꺼풀 수술에서 피부 마사지까지, 30분이면 OK

서울 테헤란밸리 한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윤정수(36) 씨는 요즘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에 있는 한 모발 클리닉에 간다.

“비즈니스는 자신감이 생명인데 점점 줄어드는 머리카락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바쁜 근무시간에 그런 일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점심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죠. 점심 식사는 사무실 근처 도넛 가게에서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삼성동에 있는 한 모발 클리닉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발 교정과 모발 관리 클리닉을 받으러 오는 직장인들이 한 주에 6~7명 정도로 예전보다 늘었다고 한다. 그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귀띔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순임(25) 씨는 이 달 초에 회사 근처인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비빔밥을 주문해 먹고 바로 병원으로 왔죠. 평일에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에 간단히 수술 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눈꺼풀에 지방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주로 매듭법을 이용해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고작 30분 정도. 1~2시간 후에는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런치 킷 쌍꺼풀 수술’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쌍꺼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이 근처 성형외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쌍꺼풀 수술을 받으러 오는 여성 직장인들이 한 주에 2~3명 정도가 된다고.

근처 한 피부과의원에는 매일 직장인 3~4명 정도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런치 필’이라는 40분 짜리 피부관리를 받으러 온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잠깐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직장인들의 점심문화는 이처럼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해지고 있다. 새벽같이 일어나 복잡한 전철이나 꽉 막힌 교통에 시달리면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퇴근 시간 다음으로 가장 기다려지는 때가 점심시간이다. 최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푸드점이 속속 생겨나면서 점심 시간에 여유가 생겼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 사이에서 좀 더 실속 있게 이 시간을 활용하려는 추세. 더 이상 점심시간이 밥만 먹는 시간은 아니다.

자투리 시간 이용해 헬스클럽에서 운동

테헤란밸리에 있는 한 은행에 다니는 최성욱(30) 씨는 점심시간이 되면 발걸음을 코엑스로 옮긴

다. 다양한 메뉴가 많은 코엑스 지하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옆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어 늘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침에는 출근한다고 바쁘고 퇴근 후에는 야근에다 각종 모임이 잦아 점심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늘 30분씩 운동을 하고 나면 힘이 생기고 오후 업무가 덜 피곤하죠.”

이 곳에는 다른 벤처기업 직장인들도 최씨와 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박진만(29) 씨는 지난 여름부터 매주 두 차례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한의원에서 어깨와 목에 침을 맞고 있다.

“매주 두 차례는 테이크아웃 푸드점에 미리 주문해둔 도시락을 먹어요. 식사 후 시간이 남아 점심시간에 침을 맞으러 가죠.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늘 머리가 수술했는데 좀처럼 병원에 갈 시간이 나지 않아 점심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스포츠 마사지 전문점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30분짜리 ‘퀵 마사지’를 해 주는 곳이 벌써 100여 곳이나 성업 중이다.

지난해부터 강남의 도심 지역, 강북, 여의도 등 사무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24시간 사우나’도 발 디딜 틈이 없다. 테헤란벨리의 남성 전용 휴게텔에도 점심시간 짬을 내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주당 평균 30명은 넘는다고 한다. 주로 전날 회식이나 야근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이 찾는다. 다양한 연령층이 애용하지만 다른 곳보다는 40~50대가 많다는 점이 다르다.

자기계발, 미사·법회에 참석하기도

테헤란벨리에 위치한 한 어학원에서는 12시 30분부터 1시 20분까지 외국인 프리 토킹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프리토킹으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에는 30여 명의 직장인들이 수강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문성조(33) 씨는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점심시간의 자투리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며 “점심은 햇반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한 자기계발 열풍은 지역이 따로 없다. 낮 12시에 진행되는 종로의 한 어학원 토익문제 풀이반에는 100여 명의 수강생들로 가득하다. 수강생들 중 반 이상이 양복을

입은 정장차림의 인근 회사원들. 그런가 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이버교육을 받는 직장인들도 날로 늘고 있는 추세다.

점심시간에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으려는 직장인들도 있다. 매주 금요일 낮 12시 15분부터 45분까지 중구 명동성당에서는 '직장인 점심미사'가 열린다. 이 미사에는 인근 직장인 80여 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 법회도 마찬가지다. 법회가 열리는 곳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직장인들의 참석률이 높다.

실속 있고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활용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서부터 건강관리, 어학 공부, 종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붙고 있는 다양한 점심 풍경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는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테이크아웃 푸드는 스피드와 휴대성이 뛰어나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커피에서 시작된 테이크아웃 푸드점은 비빔밥, 칼국수에서 스테이크까지 메뉴가 다양해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빔밥 포장 판매는 한식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를 끌게 된 경우. 비빔밥은 조리하는 시간이 3분밖에 안 걸려 스피드면에서 성공했고 집에서 먹는 식사와 비슷한 맛을 내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우동, 볶음밥 등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격은 4천원에서 5천5백원 정도.

신세계 강남점 지하 1층에 있는 '텔리 존'은 구절판 등 궁중요리부터 샐러드, 파스타, 탕수육 등 중국음식을 테이크아웃 용으로 판매하고 있어 주부들에게도 인기다. 또 덕수궁, 경복궁, 창경궁, 여의도 공원, 삼성동 선릉 주변은 야외에서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업체도 이미 40여 개의 체인점을 열고 성업중이다.

조금이라도 식사시간을 줄여 효과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려는 직장인들의 모습에서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건강한 애착이 느껴진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직종 만큼이나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활용 스타일도 다양화되고 있다. †